

사계절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서머리그 우승이 목표다.”  
두달여째 꼴찌를 땀뚫고 있는 서정환 KIA 감독은 서머리그 시작과 동시에 리그 우승을 자신했다. 당시 야구계에선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지만, 불가능할 듯 보였던 서 감독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KIA는 서머리그를 7경기 남겨둔 6일 현재 9승 7패로 선두 삼성(11승 5패)에 2게임차 단독 2위를 질주중이다. 정규리그 성적은 선두 SK에 17게임차, 7위 롯데에 4게임차 꼴찌지만, 최근 상승세는 매섭다 못해 무섭다. KIA의 거침없는 질주에는 막강 타선이 버티고 있다.

1번 이용규(0.273), 2번 김종국(0.350), 3번 이현근(0.579), 4번 장성호(0.353), 5번 최희섭(0.444)의 최근 5경기 평균 타율은 0.399.

이들 ‘5인방’은 서머리그 16경기에서도 평균 타율 0.360을 몰아치며 타 팀의 중심 타선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정규리그 타율·안타부분 1위에 랭크돼 있는 이현근은 서머리그에서도 타율(0.446)과 득점(16점)부분에서 1위를 기록 중이고, 이용규는 26안타로 안타부분 1위에 올라있다. 또 20타점을 때려낸 최희섭은 타점부분 1위다. 이처럼 막강 화력을 앞세운 KIA는 지난주 올 시즌 내내 ‘천적’으로 괴롭혀 오던 SK, 롯데와의 6연전서 각각 2

한여름 호랑이 힘이 ‘불끈불끈’



서머리그 2위 질주...선두 삼성과 2게임 차

한화·LG 상대 정규리그 탈꼴찌 승수쌍기

승 1패씩을 건져 올리며, 전적 징크스를 탈출하는데도 성공했다.

KIA는 이번 주 한화(7~9일·대전), LG(10~12일·광주)와의 6연전을 통해 서머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하는 한편 정규리그 탈꼴찌도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

웠다. KIA는 우선 7일 대전 한화전에 특급 선발 윤석민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은 용병 투수 스코비카가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한화와 LG의 최근 전력도 크게 떨어져 KIA로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6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53	36	5	0.596	-	1승
2	두산	50	42	2	0.543	4.5	1패
3	삼성	47	43	3	0.522	6.5	1패
4	한화	45	42	2	0.517	7.0	2승
5	LG	43	43	5	0.500	8.5	1승
6	현대	42	48	1	0.467	11.5	2패
7	롯데	40	49	3	0.449	13.0	2패
8	KIA	39	56	1	0.411	17.0	2승

최근 중위권으로 추락한 한화는 타선의 핵인 김태균과 이범호의 부진, 그리고 외국인 강타자 크루즈의 아킬레스건 부상 등으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무게감이 뚝 떨어져 있다.

지난 5일 김태균이 무려 42일만에 홈런 포를 때려내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타격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연패 뒤 겨우 2승을 챙긴 김인식 한화 감독이 지난 주말 경기가 끝난 뒤 “안 맞아도 너무 (방망이가) 안 맞는다”며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

주말에 맞붙는 LG도 지난 주 2승 4패를 기록, 2위 그룹 4팀 중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지난 5일 두산전에서는 선발인 최원호까지 셋업맨으로 투입한 끝에 겨우 1승을 챙겼을 정도다. 두팀 모두 KIA의 상승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KIA의 이번 주 우승이 점쳐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강의 1~5번 타선을 앞세운 KIA가 서머리그 1위와 정규리그 탈꼴찌의 목표를 이뤄낼 지 기대되는 한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년 연속 30 홈런’ <美> 거포의 꿈 <亞> ‘오늘 756호 쏜다’



이승엽 올 20 홈런 기록 중

시즌 20홈런 고지를 돌파한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의 목표는 3년 연속 30홈런 달성과 우승에 맞춰진다.

이승엽은 5일 도쿄 메이저 리그 구장에서 벌어진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에서 좌완투수 이시이 가즈히사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타격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상대 타율 0.133(15타수2안타), 올해도 전날까지 0.222로 약했던 이시이에게서 첫 홈런을 뽑아냈기에 의미가 남달랐다.

91경기(팀은 98경기) 만에 20홈런 고지를 밟으면서 이승엽은 남은 46경기에서 10개만 추가하면 부상상으로 수정한 목표인 30홈런에 3년 연속 도달할 수 있다.

이승엽은 지난 롯데 시절이던 2005년 30개를 때렸고 요미우리 시절이던 지난해에는 41개를 쏘아 올렸다.

이승엽에게 있어 홈런은 요미우리 주포라는 자존심과 함께 팀 승리에 직결돼 각별하게 다룬다.

이승엽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25개), 다카하시 요시노부, 아베 신노스케(이상 24개)에 이어 팀 4번째로 20홈런을 넘어서었다. 요미우리에서 홈런 20개 이상을 친 선수가 4명을 넘기는 2005년 이후 2년 만이다. 요미우리 팀 홈런은 무려 138개. 일본 12개 구단 중 100개를 넘는 유일한 구단이다. 이미 지난해 작성한 134개를 넘었고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003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계산이다.

요미우리는 수년째 지속해 온 톱타자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 타자인 다카하시를 1번에 내세운 기묘한 타순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이승엽이 왼쪽 엄지 및 어깨 부상으로 부진했으나 다카하시, 오가사와라, 아베가 대포소를 벌이면서 작전 위주의 세밀한 야구보다 중심 타선의 한 방에 기대를 걸었던 하라 다쓰노리 감독의 구상이 적중했다.

대포에 대한 하라 감독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승리를 위해 홈런은 필요 충분조건이고 홈런을 잘 때리는 선수가 4번에 포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베를 시즌 중반 이승엽 대신 4번에 앉히고 아베 대신 오가사와라로 카드를 바꾼 것도 이들의 홈런 사이클과 궤를 같이 한다.

시즌 초부터 기록 없는 타격에 센트럴리그 홈런 2위를 달리고 있는 오가사와라의 득점권 타율은 0.302에 38타점. 자신의 시즌 타율 0.324보다 낮은 수치로 득점권에서 0.291을 때리고 35타점을 거둔 이승엽과도 엇비슷하다.

5번에 밀린 이승엽이 4번 해결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적시타도 중요하나 승리를 부르는 홈런을 자주 때리는 게 먼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즈 홈구장서 대기록 기대

1개만 때리면 미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홈구장 AT&T 파크에서 대기록 수립에 도전한다.

본즈는 6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 경기에 결장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좌측 펜스를 넘기는 755번째 아치를 그리며 이 부분 기록 보유자인 헝크 아론과 어깨를 맞댄 본즈는 이날은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대타 출장도 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는 7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피츠버그를 상대로 홈 7연전을 벌여 본즈가 자신을 위해 지어준 AT&T 파크에서 편안하게 756번째 홈런을 터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지난해 24일부터 30일까지 홈에서 벌어진 7연전에서 754번째 홈런을 터뜨렸기에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고픈 홈팬들의 기대치도 높다.

AT&T 파크에는 그의 756번째 홈런을 잡기 위한 ‘보트 퍼플’이 장사진을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본즈는 홈구장에서 통산 375개의 아치를 그렸고 2000년 개장한 AT&T 파크에서 156개를 집중시켰다.

“아론, 본즈와 동시대 선수라면 홈런 766개 이상은 때렸을 것”

■ 美 ESPN인터넷판 전망

헝크 아론(73)이 배리 본즈(43)와 동시대에 뛰었다면 766개 이상은 때렸을 것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채널 ESPN 인터넷판은 6일 아론의 기록을 본즈가 빅리그에 뛰어난 1980년 중반부터 대입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근거, 755개가 아닌 766개 이상을 터뜨렸을 것으로 전망했다.

ESPN은 시뮬레이션 기록 전문 통계회

사인 ‘이매진 스포츠’의 자료에 근거, 1954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아론의 기록을 1984년으로 옮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메이저리그는 1961년부터 경기수를 팀당 154경기에서 162경기로 늘렸다. 아론이 선수 생활 첫 7년 동안 본즈보다 경기수가 적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자료에서는 그래서 타석이 실제 1만3천940에서 1만4천327로 387타석 늘게 된다.

아론은 특이하게도 공격적인 야구가 대세였던 1950년대 보다 투수들의 전성기였

던 1960년대 더 많은 홈런을 때렸다.

실제 타자들이 득세한 1980~1990년대에 대입했다면 아론의 한 시즌 홈런 수는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늘었다.

특히 아론이 47개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렸던 1971년은 시뮬레이션상 공격률에도 본즈가 73개로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던 2001년으로 나타났다. 아론 역시 55개의 홈런을 날렸을 것으로 계산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즈 “딸에게 우승 첫 선물”

최경주 2오버 공동 11위

월드골프챔피언십 최종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아빠가 된 지 한달여 만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즈는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455

야드)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짓스톤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5언더파 65타를 몰아쳐 4라운드 함께 8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5월 와초비아챔피언십 제패 이후 석달 만에 시즌 네번째 우승을 일군 우즈는 대회 3연패와 함께 대회 통산 여섯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특히 지난 6월19일 딸 샘 알렉시스가 태어난 뒤 2차례 대회에서 우승없이 보냈던 우즈는 딸에게 처음 아버지의 우승 소식을 전해

주는 기쁨을 누렸다. 지금까지 8차례 출전해 다섯차례 우승을 포함해 한번도 4위 이하로 처진 적이 없었던 브리짓스톤 인비테이셔널은 역시 우즈의 ‘뒷밭’이었다.

우즈는 작년까지 이 대회에서 평균 타수 67.54타의 신들린 샷을 휘둘렀고 66만2천500달러의 상금을 쓸어 담아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9위 그룹에 1타 모자란 공동11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삼켰고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8오버파 78타로 크게 부진, 공동56위(15오버파 295타)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지영 준우승

브리티시여자골프 최종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마침내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거머쥐며 진정한 ‘골프여제’로 우뚝 섰다.

오초아는 6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골프링크스 올드코스(파73·6천638야드)에서 열린 LPGA 브리티시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4개를 곁들이며 1오버파 74타를 쳐 4라운드 함께 5언더파 287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들어 처음 오버파 스코어를 낸

것이 ‘육에 티’였을 뿐 첫날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한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이었다.

오초아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오히려 더 치열했던 준우승 경쟁에서는 이지영(22·하이마트)이 웃었다.

버디를 5개나 뽑아내고 보기는 3개로 막아내며 2언더파 71타를 친 이지영은 오초아에 4타 뒤진 1언더파 291타로 마리아 요르트(스웨덴)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다.

독심의 박세리(30·KTF)와 한국어자프로 골프(KLPGA) 대표 선수로 참가한 지은희(21·캘러웨이)는 나란히 공동5위(1오버파 293타)에 올라 3명의 한국 선수가 ‘톱10’에 입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